

# 국어의 補文化에 대하여

李 廷 玟  
(서울대학교)

국어 補文(化)에 관한 연구의 발자취를 더듬어 살피면서 문제점들을 부각시키고 좀 더 검토되어야 할 면을 지적할 수 있으면 한다. 그것은 넓은 의미의 變形・生成文法의 테두리 안에서 妥當한 국어 補文(化) 記述을 가능케 할 方向을 모색하는 일이 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여기서 취급할 논문들은 국어 補文문제를 크게 다룬 것에 한하였기 때문에 미처 論及하지 못한 논문들 중에도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해둔다. 논문이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순서에 따라 살피기로 한다.

## 1. 이맹성(1968)

이 논문은 이른바 sentence nominalization을 주로 다루어, ‘—다는 것’, ‘—는 것’, ‘—음’, ‘—기’, ‘—느냐(—는지, —는가)’ 등의 예를 들고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고’ 보문화는 취급에서 제외되고 있다.

(A) 주요전해는 전체문장(결국 主文章)의 술부동사가 operator가 되어 operand로서의 내포문을 名詞化하는 역할을 하며, 명사화된 내포문을 전체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등으로 정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sentence operator인 술부동사가 무엇이냐에 따라 operand S에의 不具化(deformation)가 무엇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S operator변형의 결과가 명사화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라는 서술문이 각각 不具化되어 명사형을 취한다고 본다. 이제 ‘드러나다’라는 S operator로 명사화된 예를 이 논문에서 옮겨 보면,

(1) ㄱ. 그가 밀수를 하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ㄴ. 그가 밀수를 한 것이 드러났다.

ㄷ. 그가 밀수를 하였음이 드러났다.

여기서 ‘—것’의 자유로운 변동여부는 술부의 특징에 따른다고 보고, 이 S operator들을 어느 명사화를 취하느냐의 특징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다른 예를 보이면,

(2) ㄱ. 에집트가 아카바만을 봉쇄하였다고 하는 것이 물의를 일으켰다.

ㄴ. 그가 정말로 거기 갔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ㄷ. 에집트가 아카바만을 봉쇄한 것이 물의를 일으켰다.

ㄹ. 그가 부자임이 그 여자의 마음을 끌었다.

- (3) ㄱ. 나는 그가 위태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ㄴ. 나는 철수가 몸이 아픈 것을 깨달았다.  
 ㄷ. 나는 그날이 독립기념일이었음을 상기하였다.  
 ㄹ. 우리는 그가 노래하는 것을 모른다.
- (4) 나는 내일 김선생이 도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알려 주었다.
- (5) ㄱ. 그는 아들을 돌보아주기를 나에게 부탁하였다.  
 ㄷ. 아내는 집에 일찍 돌아올 것을 나에게 부탁하였다.
- (6) 나는 그가 언제 돌아왔는지를 아내에게 물어 보았다.
- (7) 그가 돈이 많음에 놀랐다.
- (8) 여자가 트럭터를 운전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

(B) 논문에서 “그가 음악회에 간다는 것이 이상하다”(p. 19)의 ‘간다는 것’은 ‘간다고 하는 것’ 즉 ‘간다고 한다’에서 또 그것은 ‘간다고 한다’에서 유도되는 것으로 본 것까지는 좋으나 (물론 여기서의 ‘하다’의 시제선택이 부자유스럽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없지 않지만), 그 주어가 표면에 나타나 있는 ‘그’에 한정되는 것으로 본 점은 수긍되지 않는다. 그 ‘말하다’의 주어는 오히려 막연히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킬 때가 더 많다고 하겠다.

(C) 미세한 차이는 어떻든간에 다음 두 문장에서 paraphrase관계를 지적, S operator의 부사화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 ㄱ. 그가 우리를 속였다는 것이 확실하다.  
 ㄴ. 확실히, 그가 우리를 속였다.

그리고 다음 두 문장은 같은 동사로 된 operator를 취하고 있으나, 의미가 달라 paraphrase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결국 한 동사가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operator로서 작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 ㄱ. 나는 그가 피아노를 친다는 것을 들었다.  
 ㄴ. 나는 그가 피아노를 치는 것을 들었다.

또한 양태부사화와 문장부사화를 비교하고 있다.

(D) 같은 operator에 지배되는 ‘—다는 것’과 ‘—는 것’, ‘—임’은 paraphrasable하다고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음과 같이 ‘—할 것’과 ‘—하기’가 paraphrase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ㄱ. 나는 그가 출선수범할 것을 역설하였다.  
 ㄴ. 나는 그가 출선수범하기를 역설하였다.

(E) S operator변형이 겹쳐 일어나 여러 S operator를 포함하는 복문이 가능해 짐을 기술하고 (물론 Aspects前 이론이기 때문에 기저에 당초부터 내포문을 recursive하게 나타내지

않은 것은 당연) 예를 보이는 가운데, 다음 네 operator가 들어있는 예가 ‘quite acceptable’ 하다고 되어 있으나, 주어와 동사를 맺는 데 혼란이 커서 이의가 더 많을 것 같다.

(p. 84) 나는((((A가(((Y가 X에게 ((담배를 피우는 것)을 삼가할 것))을 권하는 것)))을 듣는 것))))을 보았다.

반대로 비문장으로 취급한 다음 예는 문장이 될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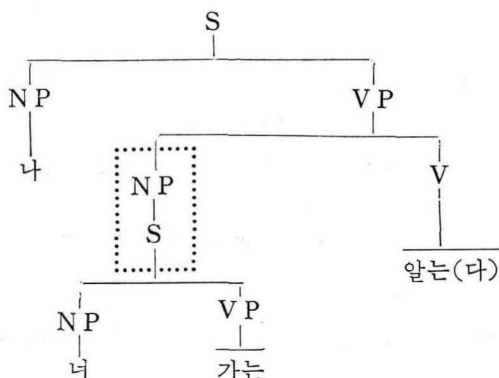
(p. 30) \*나는 정든 고향이 떠나기가 쉽사하였다.

(F)이 논문은 우리말의 문장 명사화문제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다룬것으로서 방대한 자료를 잘 정리해주어, 이 방면의 연구에 지침이 되나, Harris계의 이론 영향이 커서 Chomsky 후의 변형문법에 주로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좀 생소하다고 하겠다.

## 2. 이홍배(1970)

이 논문의 보문화에 관한 章은 변형문법 이론에 입각하여 국어보문화를 매우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음과 같이 논점의 중요한 것을 검토하기로 한다.

(A) 국어에서 명사구보문화(NP Complementation)만을 인정하고 있다. 목적어 주어명사구의 위치에 내포되는 보문을 기저에서 명사구마디에 지배되는 S로 다음과 같이 표시해 주고 있다.



Rosenbaum이 몇가지 이유를 들어 영어에서 동사구보문화(VP Complementation)를 설정한 것과는 좀 다른 취급이다. 그러나 국어의 ‘—고’ 보문이 주어위치에 오지 않는 점에 대해 여하간 고찰이 있음직하다. 그리고 “한이 나에게 가라고 충고하였다”에서 ‘가라고’가 심층에서는 S위의 NP에 매달리지만 표면에서는 NP가 사라지고 S에만 지배되는 것으로 취급한 데 대해서도 좀 더 뒷받침이 있었음직하다.

### (B) 4 型の 보문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형의 보문을 가르고 있다.

(1) 한이 철수가 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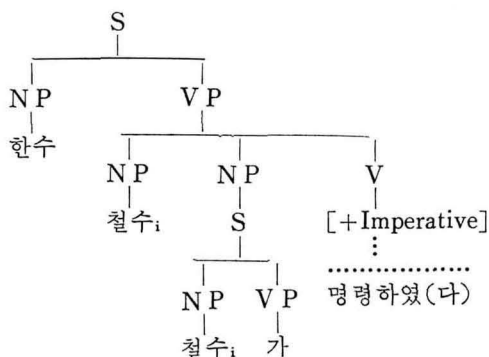
(2) 한이 철수가 갔느냐고 물었다.

(3) 한이 철수에게 가라고 명령했다.

(4) 한이 철수에게 가자고 제안했다.

보문 안의 ‘-다’, ‘-느냐’, ‘-라’, ‘-자’ 등 문장어미는 오로지 상위 수행동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아 수행문이론을 보문화에 전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흥미있는 국어보문화 체계를 세우고 있다. 보문을 이루는 명제는 원래 서술·의문·명령·제의등의 문장형에 있어 심층에서 중립적인 것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은 명사보문을 이루는 문장이 서술문(‘...다’)에서 나오는 것으로 본 앞의 이맹성(1968)과 대조적이다. 물론 취급 대상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

(C) 보문어미 ‘-다’, ‘-라’, ‘-느냐’, ‘-자’는 그 상위문의 동사가 각각 수행동사처럼 [+Declarative]; [+Imperative]; [+Question]; [+Propositive]의 자질을 가졌으면 그에 따라서 각각 명령문어미삽입등의 규칙으로 표면에 나타나게 된다. 이 때의 구조조건은 상위문에 [+Imperative]등이 있느냐의 여부다. 이 자질을 가진 동사는 본래는 수행문의 수행동사로 쓰이는 것이지만 과거가 되었다든지하여 보고(report)가 될 때에는 수행성(遂行性)은 없어진다. 예 하나를 도식으로 보자.



(D) 보문자(Complementizer)는 변형규칙으로 삽입된다. 즉 다음과 같은 보문자 배치(고-finite)규칙이 우선적으로 있다한다.

SD : X — NP[S]NP — X  
       1      2      3  
 SC : 1      2+고      3

이 규칙에 따라 “한수가 철수에게 가라고 명령하였다”의 고가 나타나며, 나머지 ‘-것’, ‘-기’, ‘-어’, ‘-음’, non-finite ‘-고’ (가고 싶다의 고)등의 보문화는 ‘-것’—보문자 전환규칙등에 의해 바뀌는 것으로 보았다. 즉

SD : X — S-고 — X  
       1      2      3      4  
 SC : 1      2      것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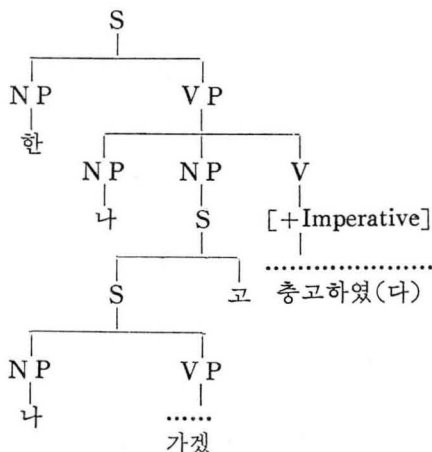
(-기, -어, -음, non-finite-고도 마찬가지)

물론 이들 각 형태의 보문들은 전제(前提)상의 차이등 중대한 의미차이 때문에 모두 ‘고’ 삽입을 통해 자의적인 변환규칙으로 표면화한다는 주장은 오늘의 이론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시 Rosenbaum의 영어보문화이론의 영향하에서 가능했던 착안이라고 본다.

한편, 보문자 선택에 관한 이론배경을 그의 글을 직접 갖다가 보기로 한다.

For the verbs of ‘communication’(말하다, 명령하다, 묻다등), there is a redundancy rule in the lexicon which specifies that, if a verb belonging to this class is unmarked as to the complementizer changing rules, it will not undergo any of the complementizer changing rules. On the other hand, a verb belonging to this class is marked as undergoing a complementizer changing, say [+것-comp], the 것-Complementizer Changing rule optionally……

Lakoff(1965)에 따라, placement rule(고)은 ‘ungoverned’ (SD)한 것으로, changing rule은 ‘governed’(marked)된 것으로 각각 보았다.



### 3. 양인석 (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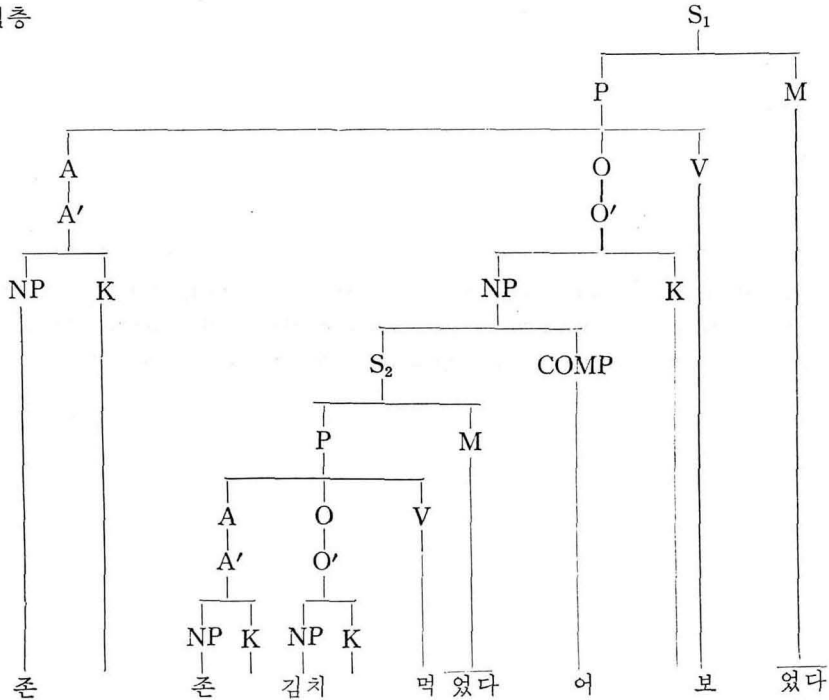
Fillmore의 格文法 테두리 안에서 우리말의 보문구조와 관련된 문제들을 이모저모 비교적 자세히 고찰하고 있다. 여기서는 일련의 보문구성을 모두 명사구보문으로 보아 基底의 目的格(O)등으로 삼았으며, 보문자들을 심층구조의 요소로 취급하고 있다.

(A) 보문자 ‘-고’, ‘-어’, ‘-게’가 붙는 보문들을 심층 主節동사의 목적격으로 보고 다음 페이지 (2)와 같은 심층구조를 보여주고 있다(p. 117참조).

(1) 존이 김치를 먹어볼 보았다.

보문자도 이미 심층에 주어지므로 여기서 보문화과정에 따른 변형들은 보문 안의 주어 를 없애는 동일명사구삭제와 보문 안에 주어진 樣相(modality)을 없애는 규칙등 일반적인 것들이다. 이제 보문들이 명사구라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소 어색하지만 모두 ‘-를’ 을 붙여서 이 필자가 든 예를 옮겨보자(p. 120).

## (2) 심층



## (3) 가고를 싶다.

읽어를 주(다)

살게를 되(다)

이들 보문구성이 복합동사를 이룬다고 말하고 하위동사의 의미자질이 상위동사의 의미자질에 동화된다는 자질동화규칙을 내세우고 있으나 (p. 122), 이론상 어려운 이러한 규칙보다는 상위동사의 어휘상의 어떤 특정한 전제(前提)가 하위까지 제어함을 보이는 좀더 약화된 규칙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보문마다 표면에 ‘-를’을 붙여 다룬 것은 매우 재미있으나 표면에 ‘-를’이 붙을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심층구조의 문법범주가 명사여야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예를 들어 ‘밥을 먹고를 간다’에서 ‘밥을 먹고’가 심층에서 명사구로 꼭 출발해야 할 것 같지는 않다. 여기서 ‘-를’은 強勢를 나타내는 정도다. 어떤 구성성분(constituent)이 명사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열려있고 이는 표면가까이에서의 현상인 경우도 있다.

(B) ‘-고’, ‘-어’, ‘-게’ 등 보문자들을 심층구조요소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서 이유를 들어 정당화하고 있다. 즉 이들 보문자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상위동사에 의해서 豫斷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소변별쌍(minimal pair)과 같은 ‘살고 있다’ ‘살아 있다’를 대조시키고 그 의미차를 ‘-고’와 ‘-어’의 심층차이로 돌리고, 그 밖에 Kiparsky이론에 따라 ‘-는 것’과 ‘-고’의 차이들은 사실성(factivity)의 전제차이로 구별하고 있다. 물론 이들 구문간에 의미차가 있음은 명백하다. 다만 가장 나은 설명을 위해

서 어떻게 記述해줄 것이냐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아직 그 의미차의 성격들마저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다음 두 문장은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4) a. 철수는 영희가 죽은 것으로 알았다.

b. 철수는 영희가 죽은 것을 알았다.

이 두 문장은 모두 ‘—는 것’ 구문이나 문장 a에서는 영희의 죽음이 전제되지 않고 b에서는 전제되고 있다. 다음 문장을 각각 a와 b에 연결시켜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5) 그러나 사실은 영희가 죽지 않았다.

a에는 연결되나 b에는 연결되지 않는다. 여기서 ‘—으로’와 ‘—를’만이 그 전제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indicator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적격조사 ‘—를’에 전제의 의미내용이 들어 있다거나 이것이 심층구조요소라고 우리는 보지 않는다. ‘—고’, ‘—어’, ‘—게’의 취급에도 생각할 여지가 많다. 그리고 이들 보문자와 ‘—기’, ‘—음’, ‘—는것’ 구문들 사이의 차이도 앞으로 더 밝혀져야 할 것이다.

(C) 앞서 이홍배(1970)의 우리말 수행문 분석과 Fillmore의 Experiencer格에 대한 연구에 자극되었음인지 心理동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었는데, 양인석(1972)도 이에 대해 상당한 지면을 바치고 있음을 보겠다. 여기서 한가지 재미있는 현상으로서 이른바 ‘자기판단’ 동사의 보문 안에서 목적격이 주격으로 달라질 수 있는 예를 보자 (p. 193참조).

(6) a. 내가 망고를 먹기가 싫다.

b. 내가 망고가 먹기가 싫다.

이를 ‘주격침입’이라는 수의적인 변형규칙을 써서 자유변이관계로 취급하고 있다.

(D) 처격조사 ‘—에’가 심층에서 사람명사구의 ‘—에게’다음에 붙어 있다가(—에게—에) 표면에서 줄어 ‘—에게’가 된다고 본 것은 (p. 182) 비경제적이다. ‘—에게’의 ‘—에’가 이미 처격이다.

사역동사 구문취급에서 다음과 같이 자체의 목적어가 없는 피사역자에 ‘—를’뿐 아니라 ‘—에게’가 붙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심히 곤란하다(p. 202).

(7) 존이 메리에게 웃긴다.

‘—게하’사역 구문에서조차 약간 부자연스러운데, 너무 일본어와 맞추어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아니라면 개인차가 심한 것 같다. 그리고 ‘—이, —히, —리, —기, —우’사역형에는 ‘허락’의 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p. 209), 있을 수도 있다(다음 예 참조).

(8) a. 나는 그 아이가 쓰고 싶어하는 글을 씌웠다.

b. 거지한테 밥을 먹여 보내라.

#### 4. 박병수 (1974)

우리말의 ‘하다’동사와 관련된 보문구조를 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불완전명사와 관련된 보문구조 취급에 특색을 보이고 있다.

(A) ‘-어’, ‘-게’, ‘-고’ 보문자와 연결된 보문은 동사구보문(VP Complement)으로 다루고 있으며, ‘-듯’, ‘-척’, ‘-는것’, ‘-더’, ‘-줄’, ‘-뿐’ 등에 연결된 보문을 명사구보문으로 보았으며, 모든 보문자들을 의미있는 심층요소로 두었다. 여기서도 ‘주관’ 동사(심리동사)를 ‘-어’ 보문자와 관련하여 고찰하고 있는데, ‘주관’ 동사문장의 주어는 일인칭 단수라야한다는 이른바 표면구조제약을 두어(p. 24)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 나타난 제약으로는 시제의 제약(현재라야하므로)과 그밖의 여러 조건때문에 원치않는 문장을 정확히 걸러내고 원하는 문장을 생성할 수가 없게 될 뿐 아니라, 그보다도 심리동사의 의미때문에 오는 통사행위의 제약이 이러한 표면의 操作으로 과연 說明力있게 記述되는 것인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그리고 다음 예문의 심층주어를 메리로 잡았으나,

(1) 메리가 존을 만나게 되었다.

이러한 起動동사의 주어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의 여지가 있으며 다음 예문을 참조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겠다(이정민(1974)참조).

(2) 공기가 맑아졌다.

의미가 다른 형용사가 소리가 같다하여 통사행위의 차이를 변형에 대한 제약으로 나타낸 것은 정확치 않다. 즉 다음 두 예문의 ‘좋다’는 각각 의미가 다르다(p.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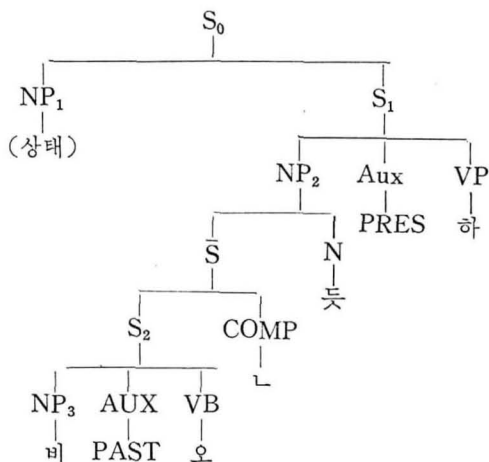
(3) a. \*존은 그 여자가 좋다.

b. 존한테는 그 여자가 좋다.

예문 a의 ‘좋다’는 소위 ‘주관’ 동사지만 예문 b의 ‘좋다’는 ‘맞는다’든가 ‘이롭다’는 별개의 뜻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변형관계로 다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어’, ‘-고’, ‘-게’ 구문을 명사구로 보지 않은 이유로 이들이 부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 ‘-듯하다’ 구문을 ‘-모양이다’, ‘-는 것이라’ 구문과 비교하여 비록 ‘하다’가 들어 있으나 상태표시임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심층구조의 표시를 시도하고 있다(p. 80).

(4)





여기서 맨윗문장의 술부가 VP가 아니고 S인 이유는 보이지 않고, ‘A가 B이다’의 문장이 그와 같은 심층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왜 그래야만 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비가 오는 모양이다’라는 문장이 전체가 하위문장으로 술부가 되어 추상적인 NP를 주어로 하는 맨윗문장에 매달린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모양’이라는 명사가 하위문의 정상적인 주어노릇을 할 수 없는 등 부자연스러운 점이 많다. 이 취급은 이번 주제발표에서 별도로 취급치 못했으나 우리말 內包(embedding)문제를 치밀히 연구한 국응도(1968)의 구성 성분분석을 연상시킨다(국응도 1968, p. 91참조).

(5) 저 사람-이 가-ㄴ 것 이 -다.

[[[Dem N VM]<sub>s</sub> N]<sub>NP</sub> [Cop MD]<sub>VP</sub>]<sub>s</sub>

‘—척하다’구문은 ‘척’이 이끄는 명사구 보문구성을 동사 ‘—하다’의 목적어로 삼고 ‘—하다’의 행위자를 主節의 주어로 삼았다.

불완전명사의 보문구문에서 특정한 불완전명사와 시제와의 co-occurrence관계를 재미있게 관찰하고 있다. 그러나 ‘—척’이 ‘본 척’과 같이 과거와만 연결되고 나머지 시제와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p. 95참조), 다음 예에서 보듯이 그렇지 않다.

(6) 나는 그 여자를 볼 적마다 가슴이 뭉클한다.

(C) ‘하’와 관련된 보문구조를 가지고 직접, 간접화법을 논하고 있는데,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에서 유도하기 위해 ‘—고하’삭제규칙을 설정하고 있는데, ‘하다’의 주어는 ‘사람들’이라고 본것은 좋으나 주의할 점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하였다’고 할 때에 증명한 내용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 아니므로 p. 120의 심층구조도는 어떤 형식으로든 좀 달라져야 할 것이다.

## 5. 남기심 (1973)

‘완형보문(完形補文)’이라 일컫는 ‘—고’와 ‘—는 N’구문을 직접인용보문에서 유도해내는 것을 특징으로 삼는 연구다.

(A) 보문이 표면에 문장종결어미를 갖추어 보문자 ‘—고’와 연결되는 경우 (예: 철수는 영희가 갔다고 말했다’)와 문장종결어미 다음에 ‘—(고 하)는 N’이 오는 경우 (예: ‘영희가 철수와 갔다(고 하)는 소문이 떠돈다’)를 가리켜 완형보문이라하고, ‘—음’, ‘—기’, ‘—지’, ‘—는 것’ (‘그는 내가 문을 연 것을 몰랐다’)의 보문을 불구보문이라하여 가르고 있다.

그런데 서술형(‘—다’), 의문형(‘—느냐’), 명령형(‘—라’)등 보문안의 종결어미는 이 홍배(1970)에서처럼 위동사의 종류에 따라 표면유도과정에서 삽입되는 것이 아니라 심층구조에 처음부터 주어진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다.

(B) 이 논문의 특징인 직접인용보문의 간접화에 의한 간접인용보문유도는 pragmatic한 측면에서 매우 그럴사한 점이 없는 것이 아니며, 이 방향으로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나, 여

기에 주어진대로는 이론적 측면에서 문제들이 있는 것 같다. 예컨대, 직접 인용문("S"로 표시된 것)의 S의 생성에 관해서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p. 46)든가 "안에 남아 있는 한" 상위문이라는 문맥에 의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른바 직접 인용된 문장도 하나의 표면구조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말토막으로 나타났건 문장으로 나타났건 그것은 그것대로 심층구조를 가지고 있어 똑같은 문법의 똑같은 기저규칙들과 변형규칙들을 통하여 표면구조화된 발화내용인 직접인용이 되어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p. 5에 주어진 기저규칙에 여러가지 다른 종류들의 S(즉 S, S-comp, "S", \*S등)가 나타난다는 것은 매우 反直觀的인 것이며, 결국 기저규칙들과 변형규칙들을 거쳐 표면으로 유도된 최종所産도 하나의 직접인용인데 (누군가의 발화내용일 터이므로), recursiveness를 살리지 못하는 중대한 결함에 빠지게 될 것이다.

(C) '—고'를 보문자로 심층에 두고 명사에 연결되는 보문일 경우 이른바 '형식요소' '하'를 변형에 의해 '—는'과 함께 동시에 삽입하는 필수적인 규칙을 설정하고 있다(p. 66). 그러나 여기서 '하'가 있으면 '—고'는 豫斷되고 의미상 비중으로 보아 '—고'보다 '하'가 심층에 들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며, '—는'이라는 요소는 별도로 분리되어 명사 앞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관형수식의 '—는'과 동일하게 취급해야만 일반화를 잃지 않는 결과가 된다.

또한 다음 예문에서 '—고'문장과 바로 뒤의 명사는(p. 70),

(1) a. 복희가 결혼했다고 소문이 떠돈다.

b. 나는 그 회의에 꼭 나가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비록 표면상 이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NP constituent를 이루는 것 같지 않다. 그것은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위의 문장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보거나, 이 논문에 준 비문장에서 수도 드러난다.

(2) a. 소문이 어떻게 떠돈나?

b. 나는 어떻게 결정을 내렸나?

(3) a. \*복희가 결혼했다고 소문이 있다.

b. \*나는 그 회의에 꼭 나가겠다고 결정을 보류했다.

(D) 우리는 의미있는 정보가 변형과정에서 소실되는 것을 이론상 원치 않는다. 그런데 직접인용문의 간접화과정에서 감탄어나 호격의 말등이 무단 탈락되고 있다. 간접화과정에서 중요시 되어야 할 문제는 또한 직접인용문 안에서 대상인 또는 대상물을 지칭 또는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이 간접화법에서 어떻게 나타나야할 것이냐하는 것이며, 그 밖에 전체 문장의 話者が 표현하는 내용과의 충돌 즉: *de re*, *de dicto* 의미의 표시문제 등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 이 연구에 나타난 인칭·시칭·서법등의 간접화가 약간 시도되었으나 이러한 연구는 좀 더 깊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E) 완형보문동사 및 명사를 따로이 가려내려한 얼마간의 시도(pp. 14~29)는 바람직한

일인테 이것은 이미 상위동사 또는 관련명사에 의해서 보문의 종류를 豫斷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들어가는 일임에도 그와 반대되는 주장을 한 것은 모순되는 일이 아닌가 싶다. 다음 예로 명사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보문형이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다(p. 15).

(4) a. 그가 장관이 되었다는 소문이 있다.

b. \*그가 장관이 된 소문이 있다.

그러나 한 명사가 완형・불구 양쪽 보문을 다 취할 수 있을 경우 전제(前提)의 차가 있으므로 이를 좀더 깊이 파고 들었음직하다. 위의 ‘소문’과 같은 명사는 의미상 사실의 전제를 배제하므로 b의 예문이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다음 예와 같은 경우 의미상의 차이를 가져온다(예문은 p. 25에서).

(5) a. 그는 의사노릇을 했다는 전력을 가지고 있다.

b. 그는 의사노릇을 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a의 경우 좀더 객관적으로(外的으로) 책임을 돌리는 경우이고 b는 좀더 內的이며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실의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죄목’같은 명사는 사실성의 전제를 배제하므로 논문필자의 견해와는 달리 불구보문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즉

(6) a. 그는 살인했다는 죄목으로 처형되었다.

b. \*그는 살인한 죄목으로 처형되었다.

그러나 ‘죄’의 경우는 오히려 사실성의 전제를 갖는다고 보아야 다음이 설명이 되겠다.

(7) a. ?\*그는 살인했다는 죄로 처형되었다.

b. 그는 살인한 죄로 처형되었다.

그리고 전제될 수 있는 사실도 상위문의 술부가 그것을 부정하는 주장으로 나타날 때에는 내포문의 전제가능성은 취소된다.

이상 國語補文(化)記述의 발자취를 더듬어 간단히나마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生成文法理論 자체가 記述의 明示性を 요구하는 터이므로 理論面의 발전에 따라 國語補文 현상을 다루는 眼目도 발전해 감을 엿볼 수 있겠다. 초기의 分類的 性格에서 탈피하여 차차 統辭行爲 뒷면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意味와의 관련에 눈뜨기 시작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여러 다른 종류의 補文化과정의 前提등의 意味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에 유의하여 앞으로 이 方向으로 깊이 있는 탐구를 해야 國語補文 記述의 좀더 만족할만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 참 고 문 헌

- 국응도. 1968. Embedding Transformations in Korean Syntax. University of Alberta  
Dissertation.
- 남기십. 1973. 國語完形補文法研究. 대구: 계명대출판부.
- 박병수. 1974. Complement Structures in Korean. 서울: 백합출판사.
- 양인석. 1972. Korean Syntax. 서울: 백합출판사.
- 이맹성. 1968. Nominalizations in Korean. 서울: 어학연구소.
- 이정민. 1974. Abstract Syntax and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서울: 범한서적.
- 이흥배. 1970. A Study of Korean Syntax. 서울: 범한서적.